

광주 염주종합운동장 '복합 공간' 으로 탈바꿈

스포츠·엔터테인먼트·대형 쇼핑몰 등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
체육시설 재단장 스포츠 콤플렉스로...문화콘텐츠 사업도 도입

공무원 연구모임 용역

노후화된 염주종합체육관과 롯데마트·아울렛 월드점점이 빠져나가는 '염주체육관 권역'이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대형 쇼핑몰 등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염주체육관 권역'은 대규모 시설만 놓고 보더라도 월드컵경기장과 염주종합체육관·광주FC구장·승마장·대형 마트 및 아울렛 등이 있으며, 도시철도 2호선, 민간공원 중앙공원 사업, 재개발 사업, 광주-대구 하계아시안 게임 유치 등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개발의 중심이자 관심 대상 지역이다.

2027년 1월로 계약이 끝나는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점점과 승마장·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등 염주체육관 권역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인근 주민은 물론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북구 전방·일방부지,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등에 복합쇼핑몰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서구 풍암동에도 스포츠시설과 연계된 복합상업공간이 생길 경우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기업투자 유치 환경 조성을 위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공무원 연구모임인 체육진흥과 '피지컬'가 '염주종합운동장 리뉴얼을 통한 스포테인먼트 복합 공간 조성 기본 및 타당성 조사'에 대한 연구 주제로 시장상인 대상을 받았다. 경제성 타당성 분석(B/C) 등은 전문 용역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공무원들이 시정 현안과 정책에 대해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며 약 2억원의 예산을 절약했다는 점과 국비 공모사업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광주시 대표 체육시설로 꼽히는 염주종합운동장은 염주종합체육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월드컵경기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수영장, 실내 빙상장, 테니스장, 승마장, 골프연습장 등 전문·생활 체육시설로 구성돼 있다. 부지 면적만 48만5300㎡에 달해 스포츠 복합 공간으로 재단장할 경우 도시 활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풍암·화정·공호·상무동 등 염주종합운동장 인근 10개 동 인구가 39만1200여명이며, 중앙1·2지구 등 주변 입주 예정 단지가 5000여 세대로 운동장 이용객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운동장 시설물 대부분이 20~30년 이상으로 노후한 데다 균열, 누수, 부식으로 시설물 안전 등급에서 C, D 등급을 받는 등 물리적 상태가 악화된 상황이다. 불법 주·정차,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도 높다. 운동장 부지에 있는 롯데쇼핑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광주시와 체결한 대부계약이 2027년 1월 만료됨에 따라 대형 유통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는 것도 공무원들의 연구 계기가 됐다.

이에 '피지컬'은 연구를 통해 기존 염주종합운동장 내 체육시설과 롯데마트·롯데아울렛 등 쇼핑몰 센터를 신축 또는 재개발 등으로 활용하는 네 가지 단계별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로 2028년까지 400억원을 들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펜싱·유도 등 미래형 전문 체육시설로 리모델링하고 운동장 내 잔디와 분수광장, 지하 주차장 등 야외공간을 조성한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아시아문화전당의 하늘마당과 같은 잔디광장도 조성한다. 2단계는 2030년까지 롯데마트·롯데아울렛을 대형 복합쇼핑몰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약 12만 2500㎡인 부지를 활용해 대형 도서관과 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쇼핑몰로 만들 계획이다. 롯데쇼핑과 계약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복합쇼핑몰 구축 등의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이 3년 여나 남은 만큼 아직 재계약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3단계로는 염주승마장과 주변 노후 시설을 이전 또는 철거하고 수영장, 볼링장, IT 스포츠관 등 생활체육시설이 집약된 '광주 스포츠 콤플렉스'를 조성한다. 4단계는 월드컵경기장에 문화 콘텐츠 사업을 도입하고 대형 유명 F&B를 유치하는 등 내·외부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특히 연구모임이 기획재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스포츠도시사업 등 중앙부처 지원 공모사업 연계 방안을 비롯해 민간투자나 공공기여금을 활용한 재원 투자 전략을 제시하면서 사업 추진에 정진호가 커졌다.

염주종합운동장 재개발 사업을 민선 8기 광주시가 추진 중인 광주-대구 2038하계아시안게임, 복합쇼핑몰 유치,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과 연계해 추진하면 광주시 도시재생 인프라 구축과 도시 활력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모임 총괄을 맡은 양태영 광주시 체육진흥과 팀장은 "염주종합운동장 리뉴얼 사업의 단계별 접근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 모두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광주가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는 '스포츠 건강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시에 월드컵경기장과 염주종합체육관·광주FC구장·승마장·대형 마트 및 아울렛 등이 있는 '염주체육관 권역'을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대형 쇼핑몰 등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신건강 '국가 어젠다' ...2년마다 정신검진

상담·검진 강화 자살률 줄이기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예방에서 회복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정신건강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예방부터 회복까지'를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한 뒤, 이러한 내용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방침이다.

신속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대응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복지 서비스 강화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힘쓴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25.2명인 국내 자살률을 10년 안에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지자체장이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하고 불응 시 입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외래치료 지원제'도 활성화한다. 정신질환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으면 퇴원 시 본인 동의 없어도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이들의 정보를 넘겨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추진상황과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과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이 밖에도 ▲20~34세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 ▲내년 7월부터 자살 예방 교육 의무화 ▲자살 예방 신고·상담 전화번호 '109'로 통합·운영 ▲중증 정신질환 치료 체계 정비 ▲정신질환자 일상 회복 등을 도울 예정이다.

이행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우리나라 정신 건강 수준 위협한 수준이라는 심각성 인식하고 국가 어젠다로 정책 혁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신건강정책 집행을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자로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연합뉴스



자연도 정성도 맛도 영양도
아낌없이 다 담은
전남쌀

영양 가득 맛 좋은 전남쌀은



에서 jnmall.kr



넉넉한 평야에서 받은 햇볕 한가득
산과 바다를 훑고 지나온 청량한 바람과
일년 사계절 씁 없이 들본 농부의 지극 정성까지
전남쌀은 맛 좋은 밥을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아낌없이
다 담았습니다